

# 위령의 날

(셋째미사) 11월2일

시편 23(22). 1-3 4 5 6 (© 4♩=♩ 또는 1)

손상오 신부 작곡

주 - 님 - 은 나의 목 - 자 아 쉬 을 것 없 어 다

(후렴 1)

어 둠 의 골 짜 기 를 간 다 하 여 도 주 님 함 께 계 시 오 니 두 려 울 것 없 나 이 다

(후렴 2)

1. 주님은 나의 목자	아쉬울 것 없어	라	푸른 풀밭에	나를 쉬게	하 시 고
2. 어둠의 골짜기를	간다 하여	도	당신 함께 계시오니	두려울 것 없	나 이 다
3. 원수들	보는 앞	서	제게	상을 차려	주 시 고
4. 제한 평생	모든 날	에	은총과 자애만이	따르	리 - 니

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고서, 내 영혼에 생기 돌우어 주시 고 당신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 끌 어 주 시 네

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 이 되 나 이 다

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 니 제 술 잔 넘 치 도 록 가 득 하 옴 니 다

저는 오래 오 래 주 님 집 에 사 - 오 리 - 다

D.C.